

2024.08.22(목)

한국문화원에 모인 韓日 학생들 우정으로 밝히는 양국 미래 - 한일미래팩토리포럼 2024 개최

일본 국립 쓰쿠바대학교가 주최하는 한일미래팩토리포럼 2024 에 참가한 한일 양국 고등학생과 대학생 100 여명이 8 월 22 일(목) 주일한국문화원(이하 문화원)에 방문하여 한일문화교류의 흐름과 세대별 인식변화, 문화원에 역할에 대해 배우고 한국문화체험을 즐기는 자리를 가졌다.

쓰쿠바대학의 창학 151 년 개교 50 주년 기념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3 회째를 맞이하는 올해 첫 대면연수로 진행되어 심사를 통해 선발된 한일 대학생 100 여명이 3 박 4 일동안 캠프 형식으로 팀별 활동을 통해 한일우호와 미래에 대한 과제탐구와 발표로 진행되었다. 문화원에 방문한 한일학생들은 공형식 문화원장의 강연을 들은 후, 일본내 최다 한국서적을 소장한 도서영상자료실과 영화와 잡지 촬영장으로도 쓰이는 사랑방과 하늘정원을 견학하며 일본에서 한국문화와 한류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자리를 가졌다.

공형식 문화원장은 '이번 포럼을 통해 쌓은 우정은 두 나라의 미래에 커다란 힘이 될 것이고 여러분의 미래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 강조하면서 '도쿄돔에서 뉴진스의 하기가 부른 푸른 산호초처럼 세대를 아우르며 양국의 경계를 녹이는 역할을 해 주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포럼에 참가한 사토 유이씨는 '한국여행을 계기로 4 년전부터 한국어를 공부했다. K-POP 과 드라마를 좋아하고 한국어로 한국인과 교류를 해 보고 싶었는데 생각보다 그런 기회가 많지 않다. 이번에 한국어로 토론도 하며 서로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던 점이 너무 즐거웠고 재미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현재 와세다 대학에 교환 유학 중으로 포럼에 참가한 조민수씨는 '작년에도 외무성이 주최하는 교류 프로그램에 참가했는데 그때 사귀 일본인 친구와 지금도 연락을 하고 그때 경험이 너무 좋고 기억에 남아서 올해도 참가하게 되었다. 양국 서로에게 관심 있는 한국 친구, 일본 친구 모두를 만날 수 있고 보통 영어로 진행되는 교류프로그램과 달리 오로지 한국어, 일본어로 대화를 하게 된 점이 특히 좋았다. 이런 경험을 살려 한일을 잇는 교류와 관련된 일을 해 보고 싶다'며 소감을 밝혔다.



행사 전경 및 참가자들

<담당연락처 : 민병욱(행사) / 조은경(홍보) ☎ +81-3-3357-5970 ✉ pr@koreanculture.jp>